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169

JCCT 2019-2-20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s on Their Leadership

김은경*, 김상림**

Eun Kyoung Kim*, Sang Lim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20개소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400명이다. 연구대상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 및 리더십을 측정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측정도구의 문항신뢰도와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Pearson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이 높게 나타날수록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은 리더십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영향력에 있어 친사회적행동이 정서지능 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유아 리더십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서·사회성발달의 일부로 본 연구결과는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 증진을 통해 리더십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유아, 정서지능, 친사회적행동, 리더십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s on their leadership. The subjects were 400 children aged 4 to 5 in the metropolitan area in South Korea. Subjects' emotional intelligence, prosocial behaviors, and leadership were measured by their teachers using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and analysis of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3.0.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s well as prosocial behaviors showed the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ir leadership. In additi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s had the positive effects on their leadership.

Key words : Young Children, Emotional Intelligence, Prosocial Behaviors, Leadership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리더십은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덕목 중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리더십의 유형과 내용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되었다[1][2]. 과거에는 소수에 의해 조직의 목표가 정해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성원 전체를 통제하고 한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요구되었으므로, 카리스마와 언변, 나이, 지위 등이 리더십과 관련된

*준회원,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제1저자)

**정회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10월 22일, 수정완료일: 2018년 12월 26일

게재확정일: 2019년 1월 9일

Received: October 22, 2018 / Revised: December 26, 2018

Accepted: January 09, 2019

*Corresponding Author: slkim@in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주요 요소였다. 반면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21세기에는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는 리더십이 요구되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변화의 상황을 판단하며 타인 뿐 아니라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이 중시된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서의 리더십은 더 이상 소수에게 집중된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또한 성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부터 익히고 계발시켜 나가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리더십 개념이 확대되면서 유아 리더십 발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리더십은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발달 중 일부로 정서·사회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3][4]. 유아기는 가정 이외의 첫 사회적 맥락인 유아교육기관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유아는 이 시기의 리더십 발달을 통해 또래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유아기 리더십은 ‘또래 집단에서 융화하면서 집단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다양한 관계에서 사회적, 정서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스스로 의지를 발휘하여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된다[1].

유아 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리더십 발달의 이해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특성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유아 리더십의 발달과 직결된 요인으로 정서지능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다[5-11]. Mayer와 Salovey[12]에 의해 제안된 정서지능은 정서를 인지적으로 통합하고 조절하여 인지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 능력으로 정의된다. 정서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드러내는 능력,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과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잘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구인이다[13]. 유아를 대상으로 실행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서지능은 리더십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6][9-11], 나아가 리더십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5][8].

유아 리더십과 관련된 또 다른 정서·사회성 변인은

친사회적행동이다. 친사회적행동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의 사회적 행동으로,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14]. 친사회적행동은 전인적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유아기에 형성되며, 대인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다[15]. 즉 유아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을 토대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다[16]. Kim YO[17]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시도하기,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친사회적행동은 리더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5][18]. 즉, 교사 평정에서 친사회적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유아일수록 리더십의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도적인 배려 능력이 리더십과 높은 상관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실행된 바 없으나, 친사회적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적유능감과 정서지능 및 정서조절능력 간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18][19] 결과에 근거하여 친사회적 행동과 유아리더십 간 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으로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을 선정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유아 리더십 발달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높이며,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 및 리더십 간 관계를 알아보고,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 및 리더십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 20개소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400명이다. 유아교육기관 유형과 연령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임의 표집하여 선정했으며,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여아 210명(52.5%), 남아 190명(47.5%)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만 4세와 만 5세가 각각 200명(50%)이었다. 출생순위 분포는 둘째가 158명(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첫째 138명(34.5%), 외동 74명(18.5%), 셋째 이상 30명(7.5%)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 및 리더십은 담임을 맡고 있는 유아교사의 질문지 응답을 통해 측정되었다. 유아교사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담당 학급 연령은 만4세와 만5세가 각각 50%였다. 유아교사의 연령 분포는 25~29세(35%), 30~34세(25%), 35~39세(25%), 40세 이상(15%)이었으며, 학력 분포는 2~3년제 전문대학 졸업(45%), 4년제 대학교 졸업(35%), 대학원 졸업(20%)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경력은 3년 이상~5년 미만(5%), 5년 이상~10년 미만(45%), 10년 이상(50%)이었다.

2. 측정도구

1) 리더십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용 유아 리더십 검사 척도[2]를 사용했다. 본 검사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도전과 자신감(13개 문항), 타인존중(7개 문항), 자기행동관리(6개 문항), 문제해결력(5개 문항)의 4개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문항 평균점수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는 도전과 자신감 .94, 타인존중

.93, 자기행동관리 .93, 문제해결력 .90, 전체 .97이었다.

2)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Mayer와 Salovey[12]의 정서지능 모형에 기초하여 개발된 만 4~5세용 정서지능 체크리스트[13]를 사용했다. 본 검사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자기 인식(7개 문항), 자기 조절(8개 문항), 타인인식(7개 문항), 타인조절 (9개 문항)의 4개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문항 평균점수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인식 .80, 자기조절 .92, 타인인식 .92, 타인조절 .89, 전체 .94였다.

3) 친사회적행동

친사회적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의 친사회성 평가척도[17]를 사용했다. 본 검사 도구는 총 42문항으로 지도성(8개 문항), 도움주기(9개 문항), 의사소통(7개 문항), 주도적 배려(6개 문항), 접근시도하기(5개 문항), 나누기(3개 문항), 감정 이입 및 조절(4개 문항)의 7개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문항 평균점수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는 지도성 .91, 도움주기 .94, 의사소통 .91, 주도적 배려 .92, 접근시도하기 .91, 나누기 .89, 감정이입 및 조절 .88, 전체 .98이었다.

3. 연구절차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4, 5세 유아를 기관유형 및 연령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임의표집했다. 본 조사는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주 동안 연구대상에게 설문지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에게 연구목적, 취지와 설문응답방법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했다. 총 440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고 420부는 회수했으며(회수율 95.4%), 이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20부를 제외하고 최종 400부를 자료로 사용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구체적 분석 방법으로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고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를 도출했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행동과 리더십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행동과 리더십 간의 관계

첫 번째 연구문제인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행동과 리더십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Table 1). 먼저 주요변인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정서지능은 총점의 평균이 $M = 3.77(SD = .54)$, 하위요인의 평균이 $M = 3.33 \sim 4.11(SD = .56 \sim .85)$ 로 중간정도를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은 총점의 평균이 $M = 3.76(SD = .69)$, 하위요인의 평균이 $M = 3.67 \sim 3.96(SD = .68 \sim .79)$ 으로 중간정도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리더십은 평균이 $M = 3.54(SD = .70)$ 로 중간 수준을 다소 상회했다.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행동과 리더십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첫째, 정서지능의 총점($r = .80, p < .01$) 및 하위요인($r = .46 \sim .75, p < .01$)은 리더십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친사회적행동의 총점($r = .84, p < .01$) 및 하위요인($r = .68 \sim .81, p < .01$)은 리더십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고 친사회적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정서지능과 리더십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6][9-11] 및 친사회적행동과 리더십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15][18]를 지지한다.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이타적이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대[6]. 이와 같이 높은 정서지능의 특성이 높은 리더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 및 리더십 간의 관계 ($N = 400$)
Table 1.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Prosocial Behaviors, and Leadership ($N = 400$)

Independent variables	Leadership	
	<i>r</i>	<i>M(SD)</i>
Emotional Intelligence	Self awareness	.46** 4.11(.56)
	Self regulation	.56** 3.33(.85)
	Awareness of others	.71** 3.79(.70)
	Regulation of others	.75** 3.88(.64)
	Total score	.80** 3.77(.54)
Prosocial Behaviors	Initiative	.81** 3.67(.72)
	Helping	.79** 3.73(.79)
	Communication	.80** 3.86(.68)
	Thoughtfulness	.81** 3.72(.79)
	Trying to access	.70** 3.96(.70)
	Sharing	.68** 3.71(.78)
	Empathy/regulation	.76** 3.67(.77)
	Total score	.84** 3.76(.69)

** $p < .01$

2.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에서와 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값은 .1 이상이고 VIF값은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이 1.86으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의 위험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표 2.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N = 400)
 Table 2.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s on Their Leadership (N = 400)

Independent Variables	Leadership		
	B	β	t
(Constant)	-.02	-	-.17
Emotional intelligence	.31	.24	4.23***
Prosocial behaviors	.64	.63	11.03***
F	505.07***		
R ²	.72		

***p < .001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은 리더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F = 505.07, p < .001$), 이들 변인은 리더십 전체의 71.8%($R^2 = .7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친사회적행동($\beta = .63; t = 11.03, p < .001$)이 정서지능($\beta = .24; t = 4.23, p < .001$)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요인으로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을 함께 포함하여 고찰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본 연구결과는 정서지능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는 Han HR[11] 및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는 Im EK[18]와 Kim EY[2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정서지능을 높여주며, 다양한 친사회적행동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일차적 양육자인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유아기 리더십 발달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이해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계발하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래관계가 활발하게 형성되는 유아기는 성인사회에서와 같이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잠재력을 가지고 태

어나는 보편적인 개인특성으로 간주되며, 특정한 소수에게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닌 누구나 갖춰야 하는 기초소양으로 여겨진다[2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기의 리더십을 이해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의의 있다 하겠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Miller[22]는 모두가 가진 리더십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리더십생활기술(leadership life skills)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정서지능을 높이고 친사회적행동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기의 리더십을 일상생활에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400명의 유아를 선정하고,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 및 리더십을 측정했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고 친사회적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은 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친사회적행동이 정서지능 보다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한 지역을 고려한 연구대상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행동 및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담임교사를 통한 질문지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담임교사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 오차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유아의 리더십을 증진시키는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Seo., K. N., A Study on Variables Related to Leadership of Young Children, Ph.D.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uth Korea, 2008.
- [2] Y. S. Jang and Y. S. Hwang,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s Leadership Scale for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JKIECE)*, Vol. 29, No. 4, pp. 5-11, 2009.
- [3] Kim, M. S., A Study on Effect of the Children Self-Leadership Program,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outh Korea, 2005.
- [4] Kang, H. S., Relationships Among Popularity, Multiple Intelligences and Leadership of Pre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outh Korea, 2010.
- [5] Ok, T. S.,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eative Personality on Their Leadership, Ph.D. Thesis,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South Korea, 2016.
- [6] M. N. Lee,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Happiness and Young Children's Leadership," *The Journal of a Study on Holistic Education(JSHE)*, Vol. 18, No. 4, pp. 151-167, 2014.
- [7] Y. S. Jang and Y. S. Hwang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dership in Half-day Program and Full-day Program,"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JECERR)*, Vol. 13, No. 4, pp. 187-205, 2009.
- [8] Jeong, J. H., The Relationship Among Young Children's Leadership,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uth Korea, 2011.
- [9] Choi, E. H., A Study on Leadership, Playfuln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outh Korea, 2010.
- [10] M. K. Han and Y. K. Han,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Young Children's Self-leadership: Mother's Verbal Control Style and Mediated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JFEXCE)*, Vol. 16, No. 3, pp. 219-250, 2009.
- [11] Han, H. R., The Effects of Playfuln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Young Children's Leadership, Master's Thesis, Gyeongnam University, South Korea, 2017.
- [12] J. D. Mayer, and P. Salovey,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and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s: Educational Implications, pp. 3-34, New York: Harper Collins, 1997.
- [13] Lee B. R.,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Ph.D. Thesis, Chungang University, South Korea, 1998.
- [14] Choi, S. E., The Effects of Play Activities Related to Traditional Children's Songs on Young Children's Self-Perception and Prosocial Behavior,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South Korea, 2005.
- [15] Park, S. A., A Study on Leadership, Pro-social Behavior and Temperament of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outh Korea, 2010.
- [16] A. S. Honing and D. S. Witter, "Encouraging Positive Soci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YC)*, Vol. 49, No. 5, pp. 4-12, 1994.
- [17] Y. O.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Scale for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Studies(JCS)*, Vol. 24, No. 5, pp. 105-118, 2003.
- [18] Im, E. K., Relationships Between Self-control, Prosocial Abilities and Leadership of the Children,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South Korea, 2009.
- [19] I. S. Koh and J. S. Lee, "Effect of Preschools' Problem Behavior by Social Competence and Emotive Intelligence,"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for Children (JKAPC)*, Vol. 3, No. 1, pp. 93-111, 2008.
- [20] Kim E. Y., Impact of the Temperament, Peer Competency, Self-regulation of Preschoolers Perceived by Teachers on Their Leadership, Ph.D. Thesis,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South Korea, 2016.
- [21] P. J. Meyer and R. Slechta, "The Five Pillars of Leadership: How to Bridge the Leadership Gap," Insight Publication Group, 2002.

- [22] R. A. Miller, "Leadership Life Skills: Leader/agents' Guide," Oklahoma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1979.

※ 2019년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아동권리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의 포스
터 전문 발표 논문임